

보도 일시	2022. 11. 2.(수) 배포시점	배포 일시	2022. 11. 2.(수)
담당 부서	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성욱 (02-2110-1280)
		담당자	사무관 박성철 (02-2110-1267)

방통위, 2021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

- 다수 방송사, 방송심의 규정 준수 및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등 개선 -

-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한상혁, 이하 방통위)는 11월 2일(수), 「2021년도 방송평가」 결과를 의결하고, 이를 공개하였다.
 - 「2021년도 방송평가」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157개 방송사업자(371개 방송국)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, 방송평가위원회(위원장 김창룡 상임위원)의 심의를 거쳐 방통위에서 의결하였다.
 - 평가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, 지상파 티브이(이하 'TV'), 라디오, 이동멀티미디어방송(이하 'DMB'), 종합유선방송사업자(이하 'SO'), 위성방송,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(이하 'PP'), 보도전문 PP, 홈쇼핑 PP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방송의 내용·편성·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.
- 방송평가는 매체별로 특성을 고려해 평가기준, 평가항목 등이 상이하며, 중앙지상파 TV는 700점, 지역지상파 TV·종합편성 PP는 600점, SO·위성 및 홈쇼핑·보도전문 PP는 500점, 라디오·DMB는 3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.
 - ※ 방송매체 사업자별로 평가항목과 배점이 다르므로 동일 방송매체 간 비교는 가능하나, 다른 방송매체 간 비교는 적절치 않음

□ 각 매체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,

○ 지상파 TV의 평가점수는 KBS1 629점, MBC 583점, SBS 571점, KBS2 565점으로 나타났다.

- KBS1은 재무건전성, 콘텐츠 투자, 자체심의, 어린이프로그램 편성 항목 등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21점)
- MBC는 오보 관련 감점 감소, 재무건전성, 심의규정 준수 항목 등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9점)
- SBS는 편성규정 준수, 심의규정 준수,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항목 등의 개선으로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27점)
- KBS2는 심의규정 준수, 편성규정 준수, 자체심의 항목 등의 개선으로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43점)

○ EBS의 평가점수는 565점이며 자체심의,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 현황, 언론 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(전년 대비 -29점)

※ EBS는 방송프로그램 질, 시청자평가 프로그램, UHD 프로그램 편성 등의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되며 평가 영역별 점수를 만점으로 환산하여 결과를 산출

○ 지역민방TV의 경우 평가점수는 대전방송 490점, 케이엔엔(부산) 479점, 전주방송 471점, 티비씨(대구) 469점, 울산방송 463점, G1(강원) 462점, 광주방송 452점, 제주방송 432점, 경인방송 426점으로 나타났다.

- 청주방송은 재무건전성, 심의규정 준수, 자체심의, 시청자 의견반영, 수상 실적 등 항목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30점)
- 전주방송은 재무건전성, 자체심의, 시청자 의견반영, 심의 규정 준수 등 항목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25점)
- 경인방송은 재무건전성, 관계법령 준수, 자체심의, 콘텐츠투자 등 항목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18점)

- 대전방송은 재무건전성, 오보 관련 감점, 심의규정 준수, 자체심의, 콘텐츠 투자 등 항목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16점)
- 대구방송은 지역 프로그램 편성, 재무건전성, 심의규정 위반 등 항목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10점)
- 강원방송은 재난방송, 수상실적, 편성규정 준수 등 항목 점수 하락으로 총점이 하락하였다.(전년대비 -5점)
- 울산방송은 재난방송, 어린이프로그램 편성 등 항목 점수 하락으로 총점이 하락하였다.(전년대비 -3점)

○ 지상파 라디오 에이엠(AM)과 에프엠(FM)의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.

- 에이엠(AM) 라디오 : KBS1 234점, MBC 208점, SBS 202점, KBS2 200점
- 에프엠(FM) 라디오 : KBS2 226점, SBS 221점, MBC 216점, KBS1 198점
- 프로그램 수상실적, 재난방송, 재무건전성, 인적자원 개발 투자 등에서 사업자 간 평가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.

○ 지상파 DMB TV의 경우 지상파 계열 DMB 사업자의 평가점수는 KBS 210점, SBS 204점, MBC 203점이며, 비(非)지상파 계열 DMB 사업자의 평가점수는 한국디엠비 246점, 와이티엔디엠비 196점으로 나타났다.

- 프로그램 수상실적, 재난방송, DMB용 프로그램, 재무건전성, 인적자원 투자 등에서 사업자 간 평가점수 차이가 발생했다.

○ 종합편성 PP의 평가점수는 조선방송 500점, 제이티비씨 491점, 채널에이 490점, 매일방송 464점으로 나타났다.

- 조선방송은 편성규정 준수, 심의규정 준수 및 어린이 프로그램 항목 등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26점)

- 제이티비씨는 재난방송, 자체심의 항목에서 점수가 하락하여 총점이 하락하였다.(전년대비 -4점)
- 채널에이는 심의규정 준수, 재난방송, 재무건전성 등 항목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14점)
- 매일방송은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, 경영투명성, 콘텐츠 투자 등 항목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18점)

o 보도전문 PP의 경우는 와이티엔 437점, 연합뉴스티브이 410점으로 나타났다.

- 와이티엔은 콘텐츠 투자, 인적투자 항목 등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20점)
- 연합뉴스티브이는 재난방송 편성, 관계법령 준수, 콘텐츠 투자 항목 등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11점)

o 홈쇼핑 PP는 현대홈쇼핑 441점, 지에스샵(GS SHOP) 430점, 롯데홈쇼핑 428점, 씨제이온스타일 427점, 홈앤쇼핑 423점, 엔에스홈쇼핑 412점, 공영쇼핑 392점 등으로 나타났다.

- 현대홈쇼핑은 한국소비자원 민원, 심의규정 준수 등 항목 개선으로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22점)
- 지에스샵은 심의규정 준수 항목이 개선되었으나 관계법령 준수, 재무건전성 항목 점수가 하락하여 총점이 하락하였다.(전년대비 -11점)
- 롯데홈쇼핑은 자체심의, 심의규정 준수, 관계법령 준수, 한국소비자원 민원 등 항목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19점)
- 씨제이온스타일은 자체심의, 인적투자, 심의규정 준수, 한국소비자원 민원 등 항목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9점)

- 홈앤쇼핑은 재무건전성, 재난방송 항목 점수가 하락했으나 한국소비자원 민원, 심의규정 준수 항목 개선으로 전년대비 총점이 유지되었다.
 - 엔에스홈쇼핑은 한국소비자원 민원, 자체심의, 심의규정 준수 항목 등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14점)
 - 공영쇼핑은 심의규정 준수 항목이 개선되었으나 한국소비자원 민원, 관계법령 준수 등 점수가 하락하여 총점이 하락하였다.(전년대비 -19점)
-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(MSO)의 경우 평가점수(사업자별 평균)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399점, 엘지헬로비전 365점, 현대에이치씨엔 359점, 딜라이브 352점, 씨엠비 348점으로 나타났다.
-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관계법령 준수, 수신료 배분, 장애인/여성 고용 등 항목에서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18점)
 - 엘지헬로비전은 재무건전성 항목이 개선되었으나 관계법령 준수, 수신료 배분 등에서 점수가 하락하여 총점이 하락하였다.(전년대비 -3점)
 - 현대에이치씨엔은 경영투명성, 콘텐츠 투자 항목 등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4점)
 - 딜라이브는 시청자 의견 반영, 관계법령 준수 등 항목이 개선되어 총점이 상승하였다.(전년대비 +16점)
 - 씨엠비는 채널구성 다양성 등 항목이 개선되었으나 관계법령 준수, 콘텐츠 투자 등 항목 점수가 하락하여 총점이 하락하였다.(전년대비 -2점)
-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평가 점수 총점은 353점이며 재무건전성, 인적투자, 재난방송 등 항목 점수가 하락하여 총점이 하락하였다.(전년대비 -19점)
- 2021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(www.kcc.go.kr)에 게재되며,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·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된다. 끝.